태국 비구니승단 복원 '고군분투'

담마난다 스님, 비구계 반대에도 끝없이 노력

김민재 객원기자

비구니 계맥이 끊긴지 오래된 태국에서 비구니계를 복원하려는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보수적인 비구승단의 방해와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굳센 서원으로 정진하는 담마난다 스님(75)을 지난 11월 2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특별 보도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로 유명하다. 어디에서나 샤프론색 가사를 수한 스님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침마다 탁발을 나가거나 사원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태국불교의 모습이다. 그러나 출가자의 99% 이상이 남성인 비구승단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출가자들은 정식 출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 비구니승단을 복원하려는 담마난다 스님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담마난다 스님은 "스리랑카도 비구니를 인정하는 흐름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현재 나는 태국 최초의 테라와다 비구니"라고 웃어보였다.

현재 태국에서는 1928년 태국불교 승가최고위원회(Sangha Supreme Council)가 여성출가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생긴 후 '여성수계금지법'을 제정해 80여 년간 태국여성의 출가를 막아왔다. 승가최고위원회가 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전통 불교 교단사에 따른 것이다. 교단사에서는 부처님의 입멸 후 '끊어지지 않은 계맥'을 가진 비구와 비구니에 의해서만 수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수계를 위해 계사를 미얀마에서 모셔온 역사가 있다.

1928년 여성수계금지법으로
비구니 존재할 수 없는 태국
스리랑카서 계 받는 일 늘어
1000여 비구니 · 사미니 탄생

담마난다 스님은 "스리랑카도 미얀마 승단의 도움으로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계맥을 이어받아 비구계가 부활할 수 있었는데 왜 비구니계는 될 수 없는가 생각해 태국에 적용했다"고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담마난다 스님을 따라 태국 여성출가자들이 스리랑카를 통해 비구니계를 받으면서, 현재 태국에는 자체적으로 수계식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비구니 스님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앞선 여성수계금지령 때문에 태국 비구승단에서 계사를 초청할 수 없었다. 결국 담마난다 스님은 2014년 스리랑카의 비구 계사를 초청해 태국에서 8명의 비구니 수계를 이뤘다.


태국 테라와다 불교의 최초 비구니 담마난다 스님.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이 일은 승가 최고위원회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해 말에 여성 수계에 대한 새로운 금지령이 발표됐으며, 태국 내에서의 자체적인 비구니 수계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승가최고위원회는 비구니 수계를 금지하지만 여성 행자와 사미니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은 이점에서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임시 사미니계단을 열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은 "위원회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능한 방법을 찾아낸다"고 말했다.

승가최고위원회의 지속적인 훼방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국에는 대부분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은 285명의 비구니스님과 태국에서 수계한 800명의 사미니가 존재한다. 또한 해외에서 공부한 태국 지식인층과 진보적인 사회계층에서 비구니 승단에 대한 꾸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진보적인 사회 비평가로 유명한 술락 시바락사는 "현재 태국불교계 내에서 진행 중인 몇 안 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담마난다 스님의 노력을 평가했다. 현재 태국의 전체 77개 주 중 30개 주에서 담마난다 스님의 비구니 승단을 지원하는 신도들이 산재해 있다.

中 불상 철거작업 전역 확대

"불상 없애면 믿음 포기"… 철거비용만 수백만 달러

중국 전역에 설치된 종교 상징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전국적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종교 상징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12월 4일 "중국 전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불교적 상징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을 탄압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내몽골 자치구 우하이시(市) 관음사에 있는 21m 높이의 관음상은 "동상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철거작업은 열흘 동안 진행됐으며 약 56만 달러가 소요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100여 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철거 중 관음사를 감시했으며, 10여명의 신도들이 철거를 막기 위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체포됐다. 지역주민은 인터뷰에서 "약 42만 달러의 기부금으로 건립된 관음상은 전 세계 신도와 관광객들이 보러 오는 불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은 "당국이 올해 초 불상을 철거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책임자가 이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 사건은 은폐됐다"며 "현재 종교국 관계자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해임됐으며, 상부에서는 9월 25일 이전 이 불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우하이 시장을 해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헤이룽장성(省)에 위치한 휘롱관 국립산림공원은 관음, 미륵불, 석가모니불 등 대형 야외불상들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휘즈 절벽에 있는 26.8m 높이의 린하이 관음상은 축복을 기원하러 오는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비종교적인 장소에서는 야외 불상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 세 동상을 강제 철거했다. 철거 비용은 약 14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철거작업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즉, 종교적 상징물을 없애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비터윈터는 "중국 정부의 행위는 어떤 형태의 종교든지 짓뭉개버리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깔려있다"며 "옥외 불상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 명령을 내려 가리는 작업을 하는 등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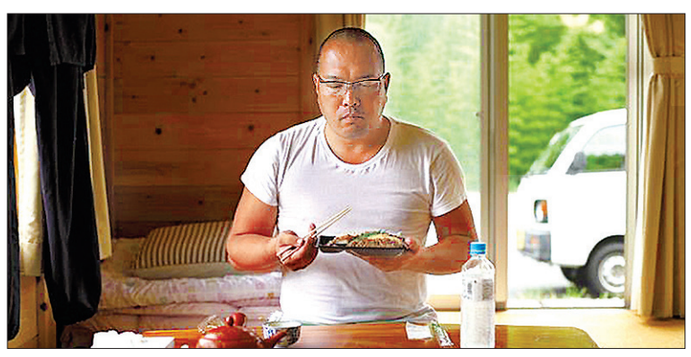
칸 영화제, 불교 다큐멘터리 주목

日 류코 쿠라시마 스님 출품작
'전좌-후쿠시마의 승려(Tenzo)'

세계적인 영화제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불교 다큐멘터리가 큰 주목을 받아 화제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12월 2일,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해 호평을 받은 영화 '전좌-후쿠시마의 승려(Tenzo)'에 대해 보도했다,

'전좌-후쿠시마의 승려(Tenzo)'는 자연과 조화로운 음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선(禪)과 진리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다. 영화의 제목인 전좌(典座)는 사찰에서 대중을 위해 공양거리를 준비하는 소임자를 뜻하는 선종용어다.

시텐노지(四天王寺)의 주지이자 감독인 류교 쿠라시마(Ryugyo Kurashima) 스님은 2017년, 일본의 조동종과 묵조선을 대표하는 단체 '전일본조동선불교협회'의 회장이 된 뒤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영화 '전좌-후쿠시마의 승려(Tenzo)'에서 연기하는 류교 쿠라시마 스님.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이 영화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가족과 절을 잃은 승려 치켄과 심한 견과류 알레르기로 때문에 과자만 잘못 먹어도 목숨에 위협을 받는 아들을 키우는 승려 류교, 두 출가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담아냈다.

영화 속 장면 중 출가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조동종의 일부 보수적인 신도들은 영화제작과 상영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쿠라시마 스님은 "현대인들은 모든 성직자들이 성자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종교적 삶의 좋은 면만을 보여준다면 그 종교는 결코 대중의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끈기 있게 설명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가까스로 설득할 수 있었다. 스님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뒤집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칸 영화제에 출품한 의의를 밝혔다.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 불교계에서도 영화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티베트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이 영화는 현대사회에 기여하는 지금의 일본 출가자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며 영화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기쁨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0월, 쿠라시마 스님은 이슬람교가 우세한 튀니지에서 열린 영화제에 참석했다. 스님은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레드카펫을 밟았다. 쿠라시마 스님은 레드카펫에서 "영화는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영화가 전하는 바"라며 영화를 통해 불교가 가진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틱낫한, 건강검진 위해 태국 방문

플럼빌리지 "폐렴 치료되는 동안 머물 예정"

영적 스승으로 추앙받는 틱낫한 스님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

틱낫한 스님이 만든 수행공동체인 플럼빌리지 소식에 따르면 스님은 11월 28일 건강검진을 위해 방콕을 방문하고 남은 기간 여행을 하는 등 순조롭게 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플럼빌리지는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스님은 똑바로 앉아 창문 밖 경치를 감상하는 등 별 무리 없이 이동했다"며 "50명의 제자들과 학생들이 태국에 도착한 스님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스님은 방콕에서 175㎞ 떨어진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있는 태국 플럼빌리지를 방문했다. 플럼빌리지는 "전문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따스한 햇볕과 건조한 공기를 즐기며 폐렴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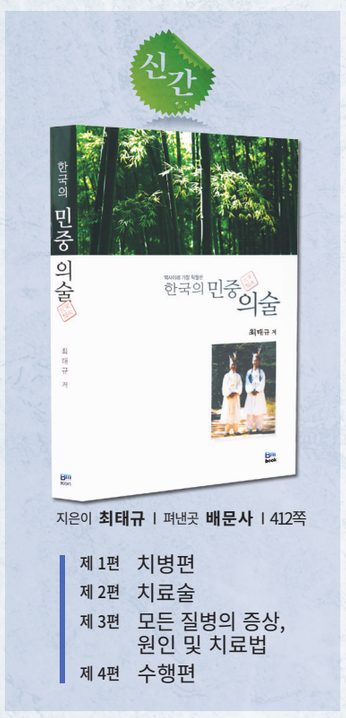
올해로 93세를 맞은 틱낫한 스님은 2014년 11월 뇌출혈로 건강이 악화됐다. 이후 2015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전문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뇌졸중 이후 처음으로 부분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되찾았다. 그 후 프랑스로 돌아온 스님은 2016년 12월 베트남 생가와 더욱 가까운 태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베트남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한 채 머물고 있다.


지난 11월 건강검진을 위해 방콕에 온 틱낫한 스님. 사진출처=플럼빌리지

이보형 객원기자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